

불교사상·역사·禪 다룬 연극과 무용

국제규모 예술제서 각광

‘아름다운 남자’ ‘선’, 2006서울국제공연제 출품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공연예술이 속속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있다.

10월 7~29일 서울에서 열리는 ‘2006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26작품 가운데 불교소재 연극을 두 편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초연한 연희단거리패의 ‘아름다운 남자’와 극단 완자무늬가 선보이는 ‘선(禪)’이 바로 그것.

이윤택씨의 극 ‘아름다운 남자’는 고려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삶을 선택하는 세 학생의 운명과 사랑, 팔만대장경 조성기를 그린 작품으로 2006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작이다. 20~22일 서울 드라마센터(02-745-3966)에서 공연된다.

깨달음을 찾아가는 선승들의 고뇌를,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의 기다림과 조우시킨 ‘선’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주최 측이 EBS와 함께 기획한 ‘라디오 희곡 읽어주기’ 코너에 7일 소개되는 등 주목받는 작품이다.

선승들의 염기적인 행동이 웃음을 자아내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삶에 대해 불교적 성찰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으로 인생의 고민을 풀어간다. 25~27일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무대에 오른다.



‘아름다운 남자’는 고려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삶을 선택한 세 스님의 운명과 팔만대장경 조성기를 그린 작품이다.

연극만이 아니다. 이미 무용계는 더 큰 폭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무용계에서는 ‘동양의 사상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아시아의 무용가가 미래의 무용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수많은 유럽 공연단이



10월 20~22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공연되는 ‘선(禪)’ 배우들이 서울 ‘낙산 시어터’에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을 아주 매력적인 공연무대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무용수들의 유럽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10월 10~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시덴스 2006’은 아시아 전통에 눈을 돌리는 유럽 무용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올해 5월 서울서 열린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06’에서 미국의 ‘웬 웨이 댄스 아트’는 불교의 선(禪) 사상을 현대무용과 조화시킨 ‘폴딩’으로 전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정 중 동의 절묘한 배합이라는 찬사를 얻었던 ‘폴딩’은 미국인의 시각에서 동양의 선사상에 주목했다. 5월 초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영산재가 세계적인 무용축제 오스트리아 탄초 춤 페스티벌에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김향금 창원대 교수가 이끄는 코리아나예술단이 영산재를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니르바나’로 탄초 춤 페스티벌에 한국 무용팀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2002년 ‘SIDance 2002’에는 에밀레 종의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된 댄스 뮤지컬 ‘신 에밀레’가 선 보여 화제였다. 교방 살풀이, 영남춤, 승무, 선무도, 탈춤, 한량무 등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공간의 춤이 서구의 움직임과 다양하게 접목시킨 ‘신 에밀레’는 댄스 뮤지컬이라는 새 장르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단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듯 최근 불교문화·사상이 공연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만이 불교 소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세계의 문화 생산자들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 사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현대무용의 대모’ 카롤린 갈송(63)은 지난 7월 창무회 김매자씨와 합작공연 준비를 위해 내한한 자리에서 “불교적이며 영적인 지향, 내면을 추구하는 것과 선 사상 등 동양의 가치에 유럽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사상에 대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기교로 동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춤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웬 웨이 댄스 아트’가 동양의 선 사상을 기반으로 ‘폴딩’을 선보인 것처럼 미국 유럽에서도 불교 사상은 구미당기는 작업 소재에 분명하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토대는 다져지고 있다. 이제 불교 공연 예술의 세계화를 위해 불교계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7월에는 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

김지연 기자 jiyang@buddhapia.com

‘불교문화재 제자리에’ 실현됐다

현등사 사리·사리구 삼성문화재단서 반환 받아

삼성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가 원 소유자인 가평 현등사로 반환된다.

삼성문화재단 한용의 사장은 9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반환의사를 밝힌 뒤 총무원과의 합동기자 회견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사리와 사리구를 현등사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의 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는 불교신자들의 경배와 신앙의 대상임을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본래의 위치인 현등사에 영원히 봉안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리 소유권 문제를 놓고 벌어질 ‘2심 공방전’과 ‘리움박

물관 앞 사리천견법회’ 등 양측의 대립국면에 종지부를 찍었다.

불교계로서는 ‘반환’이 주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불교 문화재는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불교계의 오랜 열망이 실현되는 전환점이 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전시하고 있는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들은 그동안 불교 문화재를 단순한 유물로만 여겨 ‘보존·관리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성보의 정체성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박물관계가 불교 성토와 불교 문화재의 고유성을 인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탁연 스님은 또 “사립박물관 중 규모는 물론 전시·보관 중인 유물의 수가 가장 많은 삼성리움박물관의 ‘사리 반환’은 ‘불교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사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사리 찾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해운 스님도 “동국대 박물관이 1960년대부터 용문사 부도군(정기국사 사리)로 추정 사리를 비공개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최근 확인했으며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이 일제강점기부터 소장하고 있는 수종사 부도탑 사리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면에서 계속

‘선원청규’ 제정·편찬 본격화

편찬위원장에 의정스님...자료집도 간행예정

선원 수행 풍토 진작을 위한 <조계종 선원 청규>(가칭) 제정 및 편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국선원수좌회 지도위원 고우스님과 상임대표 해국 스님 등 수좌회 임원스님들은 9월 28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조계종 선원 청규’ 제정 편찬 사업에 지원 요청.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종풍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총무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학연구소는 이날 중명, 고문, 자문위원, 편찬위원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 확정했다. 편찬위원장은

의정 스님(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이 맡았다.

편찬위는, 현재 법혜 스님이 번역하고 주석을 달고 있는 <최수 백장 청규>의 일타 스님이 한문에 토를 달 <일용소청규> <사본율장> <법망경> 등의 자료를 연구해 자료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엔 ‘선원 청규’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0월 20일 오전 11시 대구 마하야나회관에서 <조계종 선원 청규> 편찬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편찬위원회가 열린다.

남동우 기자



산문부의 선 17편
조형주의 선구자 김홍수 화백

시방세계 9편
봉은사 영어뮤지컬 연습현장

진각종 ‘문화전승원’ 건립 8편
범주스님의 ‘달마 결산전’ 23편

추석연휴 관계로 10월4일자는 휴간하고 급주 신문을 10월11일자로 발행합니다.

보이차

진년보이차·진품지시호 작수임
紅茶園
02-744-3311
011-816-5555

경전수행물 통한 깨달음 10대 강역 초창
봉선사 강설대법회

응각 스님
아함경/10월 14일
봉선사 법법전, 031)527-1951-3

樹木葬

수목장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나무처럼...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와 고인이 하나되어
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묘법입니다.

사람은 사대(지대, 수대, 화대, 풍대)와 오운(색운, 수운, 상운, 행운, 식운)으로 이루어진 한시적인 생명체이며, 죽음이 이것이 각각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위치를 잘 구현하면서도 추모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므로 한국 전통의 장묘문화를 가장 잘 계승한 장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창건된 지 1천6백년,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신력을 통하여 국운의 융창과 국민의 행복, 조상들의 명복을 위하여 단 하루도 스님들의 열매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장성지 전등사 수림원에 선망 부모와 형제자매 등 인연 있는 영혼들을 모신다란 만드신 천당과 극락에 태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후손들은 이생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서는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전등사 수림원
032.937.0125
경곡로 688번 문수리 688

www.jeondeungsa.org